

## 로쿠쇼 신사

로쿠쇼 신사는 1300년대 후반부터 마쓰다이라고를 통치한 마쓰다이라 가문의 시조인 마쓰다이라 지카우지(1394년 사망 추정)가 기원이 된 신도의 신역입니다. 전설에 따르면 지카우지는 로쿠쇼산 정상에 신사를 건립해, 모셔진 신들이 계곡에 사는 자신의 가족을 보살피 주도록 했다고 합니다. 그러나 먼 옛날부터 산 자체가 신이 머무는 곳으로 숭배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, 정식적인 신사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. 로쿠쇼 신사의 상궁은 현재도 산 위에 있으며, 하궁은 북서쪽 골짜기에 있습니다.

로쿠쇼 신사는 마쓰다이라 가문과 관련된 다른 신사와 마찬가지로, 마쓰다이라 가문에서 뺀어 나온 많은 분가의 비호를 누렸습니다. 도쿠가와 막부를 연 마쓰다이라 지카우지의 자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(1543~1616)가 일본을 통치했던 에도 시대(1603~1867)에는 쇼군 가문으로부터 큰 신사 영지를 받았습니다. 시모노미야 건물에서는 에도 시대의 건축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. 장엄한 배전과 그 뒤로 얇은 나무 기와로 지붕을 덮은 본전이 있습니다. 또한, 길을 사이에 둔 맞은편에는 민속 예능을 공연하기 위한 초가지붕의 무대가 있습니다. 무대에서는 에도 시대 말기부터 1900년대 초에 걸쳐 이 지역에서 성행한 농촌 가부키 등의 민속 예능이 공연되었습니다.